

(붙임)

사진 자료



<보존처리 전>



<보존처리 후>

해학반도도 海鶴蟠桃圖

Sea, Cranes and Peaches (Haehakbandodo)

조선 朝鮮, 19세기 말 ~ 20세기 초

비단에 채색, 금박

전체: 244.5×780.0cm/ 그림: 210.0×720.5cm

데이턴미술관 소장

<해학반도도>는 십장생도十長生圖의 여러 소재 중에서 바다海, 학鶴, 복숭아[蟠桃] 등을 강조하여 그린 그림입니다.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「동궁병풍고건기東宮屏風庫件記」 등을 통해 왕세자의 혼례를 비롯한 왕실의 여러 행사와 왕세자의 천연두 완치를 기념하는 병풍으로도 여러 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<해학반도도>의 복숭아[蟠桃]는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바다 위의 곤륜산

崑崙山에서 자라며 3천년마다 한 번씩 열매를 맺는 장수를 상징하는 열매입니다. 학과 바다 역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기원하는 길상적 그림 십장생도의 주요 소재입니다. 바다와 학, 복숭아가 어우러진 신비한 선경仙境을 표현한 이 그림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.